

## 문화성향에 따른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

조 금 호

서강대학교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친구 또는 내집단원이 자기와 유사한 정도보다는 자기가 친구 또는 내집단원과 유사한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하지만, 개인중심성향자들은 자기가 친구 또는 내집단원과 유사한 정도보다는 친구 또는 내집단원이 자기와 유사한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한다는 사실을 세 개의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문화차는 친구와의 허구적 합의를 지각 수준(연구 2) 및 공동체 의식 수준(연구 3)을 통제하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전자에게 있어서는 친구 또는 내집단원이 유사성 판단의 참조기준이 되지만, 후자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참조기준이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보다 타인이 주의의 초점으로 부각되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타인보다 자기가 주의의 초점으로 부각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주요어 : 문화성향,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 허구적 합의성, 공동체 의식

### 문화성향과 판단의 기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상황의존적인 관계 속의 존재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 속에 내포된 개인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타인에의 관심과 배려 등 조화성의 추구를 중요한 대인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상황유리적인 독립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러한 독립적인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개별적인 독특성의 추구를 중요한 대인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특징을 보인다(조금호, 2003a).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이러한 추론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

(interdependent self)의 개념을 갖게 되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독립적 자기(independent self)의 개념을 갖게 된다는 사실(Markus & Kitayama, 1991a, b) 및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공적·집단적 자기(public, collective self)가 규범적인 자기개념이 되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사적 자기(private self)가 규범적인 자기개념이 된다는 사실(Triandis, 1989, 1990)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 속의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스스로를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타인과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기의 독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스스로를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 비교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 : Heine & Lehman, 1997; Heine, Lehman, Markus,

본 연구논문은 2004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교신저자 : 조금호, 서울 마포구 신수동 1 서강대학교, 전화 : 02) 705-8560,  
 E-mail : ghcho@ccs.sogang.ac.kr

& Kitayama, 1997; Hsu, 1985; 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kit, 1997; Kunda, 2000; Markus & Kitayama, 1991a, b; Matsumoto, 2000; Sedikides & Brewer, 2001; Triandis, 1989, 1990, 1995), 동일 문화 내의 두 문화성향자 집단의 비교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조궁호와 명정완(2001)은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연구 1)과 대학생(연구 2)들을 집단중심성향자(집단중심성향은 높고, 개인중심성향은 낮은 집단)와 개인중심성향자(개인중심성향은 높고, 집단중심성향은 낮은 집단)로 나누었을 때, 공격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 :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즉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자각) 수준은 전자가 후자보다 높은 반면, 사적 자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 자기의 기분·느낌·동기 등 내적 상태에 대한 자각) 수준은 후자가 전자보다 높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사회적 의존성과 타인과의 연계 욕구를 반영하는 상호의존성 추구의 경향은 집단중심성향자가 개인중심성향자보다 높은 반면, 자립성이나 독특성 지향의 욕구를 반영하는 자율성 추구의 경향은 후자가 전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도 하다(조궁호·김지용·홍미화·김지현, 2002, 연구 3).

1) 문화차를 연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같은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서로 다른 문화집단의 반응을 비교하는 문화집단 간 비교 연구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집단 간 비교 연구의 방법은 서구의 과학적 자민족 중심주의(scientific ethno-centrism)의 문제와 연구 도구나 방법의 문화 간 동등성(cultural equivalence) 확보의 문제를 갖는다(Yang, 2000). 이러한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문화차 연구의 또 다른 축은 한 문화집단 내의 여러 하위집단 간의 비교 연구이다. 이에 한 문화 내의 지역이나 세대 등 서로 다른 하위 문화집단의 동일한 자극 상황에 대한 반응을 비교하는 연구, 지시를 통해 실험 내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나 성향을 촉발시킨 후 동일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비교하는 점화효과(priming effect)를 이용한 실험 연구 및 한 문화 내의 성원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문화성향을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서로 다른 문화성향 집단을 선정하고, 동일한 상황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비교하는 개인차 원용 연구 등의 방법이 있다. 이러한 단일 문화 내의 문화차 연구 방법은 문화 간 비교 연구가 가지는 “문화 변용, 문화특수적인 개념, 또는 문화특수적인 반응 편향 등에 기인하는 대안적 해석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진진”(Sedikides, Gaertner, & Toguchi, 2003, p. 70)이라 볼 수 있다. 즉, 문화 내 하위 집단 간 비교 연구 방법은 문화집단 간 비교 연구의 방법을 보완하는 문화차 연구의 강력한 도구인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조궁호(2003a, pp. 81-83; 2003b, pp. 87-90, 99)를 참조할 것.

이러한 결과들은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사회 상황에서 자신보다 타인의 의견·감정·관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강한 반면, 개인중심성향자들은 타인보다 자신의 의견·감정·관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조궁호, 2003b, 연구 2)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의 외적 측면과 사회 관계에 주목하는 경향이 높음에 비해, 개인중심성향자들은 개인적 특성·사고·감정·가치·동기 등 자기의 내적 측면에 일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두 문화성향자들이 보이는 이러한 주의의 차이는 곧바로 집단중심성향자 및 집단주의 사회와 개인중심성향자 및 개인주의 사회에서 각각 타인과 자기를 참조기준으로 하여 제반 사회 관계를 파악하게 될 것임(조궁호, 2003a, pp. 184-187)을 시사한다.

####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

Tversky(1977)는 마드리드가 뉴욕과 비슷한 정도에 대한 판단은 뉴욕이 마드리드와 비슷한 정도에 대한 판단보다 높으며, 재칼이 개와 비슷한 정도에 대한 판단은 개가 재칼과 비슷한 정도에 대한 판단보다 높다는 결과에 터해서, 판단 대상 사이의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asymmetry in similarity judgment) 현상을 밝혔다. 그는 이를 판단자에게 더 특출하고, 중요하며, 인지적으로 풍부한 대상을 내현적 참조(implicit reference) 또는 비교의 표준(standard of comparison)으로 삼는 경향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덜 특출하고, 덜 전형적이며, 중요하지 않은 대상(비교의 대상 : 이 경우에는 마드리드와 재칼)은 더 특출하고, 전형적이며, 중요한 대상(비교의 표준: 이 경우에는 뉴욕과 개)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지각되지만, 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 현상은 자기와 타인 사이의 유사성 판단의 경우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Holyoak와 Gordon(1983)에 따르면, 개인주의 사회인 미국의 대학생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과 유사한 정도보다는 다른 사람이 자기와 유사한 정도가 더 높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타인보다 자기에 대한 지식이 더 정교하고 풍부하며, 자기가 타인보다 더 특출한 인지의 초점이 되므로(조궁호, 1993,

1996, 2003a; 조금호·김은진, 2001; Kunda, 2000; Markus & Kitayama, 1991a), 개인주의 사회의 성원들은 자기를 비교의 표준으로 삼아서 타인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대학생에게서도 타인→자기의 유사성을 자기→타인의 유사성보다 더 높게 판단하는 경향은 사적 자의식 수준이 높아서,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만 나타나지, 사적 자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Srull & Gaelick, 1983, 실험 3)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학생에게서 나타나는 전술한 바와 같은 자기와 타인 사이의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자기→타인 유사성 < 타인→자기 유사성)은(Holyoak & Gordon, 1983; Srull & Gaelick, 1983, 실험 1, 실험 2 및 실험 3의 사적 자의식 수준이 중간이거나 높은 집단) 개인주의 사회에서 자기를 참조점(reference point)으로 하여 타인과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볼 수 있는 것이다(Holyoak & Gordon 1984).

앞에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제반 사회관계 파악의 참조기준을 자기에게서 찾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타인에게서 찾게 된다는 사실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타인에게 유사하기보다는 타인이 자기에 더 유사하다고 보는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이와 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집단주의 사회인 인도의 학생들은 비록 통계적 유의미 수준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와 유사한 정도보다는 자기가 다른 사람과 유사한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Kitayama, Markus, Tummala, Kurokawa, & Kato, 1990; Markus & Kitayama, 1991a, pp. 231-232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에 대한 지식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식이 비교적 더 정교화되고 특출하므로”(Markus & Kitayama, 1991a, p. 232) 유사성 판단에서 다른 사람을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에 대한 표상이 타인에 대한 표상보다 더 정교하고 풍부하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타인에 대한 표상이 자

기에 대한 표상보다 더 정교하거나 “타인이 최소한 자기만큼 풍부하게 표상되기”(Kunda, 2000, p. 522) 때문인 것이다.

### 본 연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자기와 타인 사이의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 양상의 문화차(개인주의: 자기→타인 유사성 < 타인→자기 유사성; 집단주의: 자기→타인 유사성 > 타인→자기 유사성)를 관련된 세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보려 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방법은 문화간 비교의 방법이 아니라 개인차를 원용한 문화내적 비교의 방법이었다.<sup>2)</sup> 즉,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집단중심성향자들과 개인중심성향자들로 나누었을 때, 이들이 전술한 바와 같은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의 문화차의 양상을 보일 것인지를 확인해 보려 하였다.

우선 연구 1에서는 자기와 타인 사이의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문화차의 실상을 확인해 본 다음, 이러한

2) Triandis(1994, 1995; 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Triandis, Leung, Villareal, & Clark, 1985)는 한 문화집단 내의 성원들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서, 이들을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집단주의 사회는 집단중심성향자가 개인중심성향자보다 많은 사회이고, 개인주의 사회는 그 반대인 사회로서(Triandis, 1994),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는 각각 집단주의 사회와 개인주의 사회의 제반 심리적·행동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 문화집단 내의 성원들에게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특징적인 자기관이나 가치관 등 여러 특성의 차이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를 선별하고, 이들에게서 같은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확인하는 문화내적 비교 연구의 방법으로 문화차를 연구하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고재홍, 2001; 이수원·이현남, 1993; 장성수·이수원·정진곤, 1990; 조금호, 2002, 2003b; 조금호·김소연, 1998; 조금호·김은진, 2001; 조금호·김지용·홍미화·김지현, 2002; 조금호·명정환, 2001; 한규석·오점조, 1993), 유태인(Kurman, 2001, 연구 2) 및 미국인(Sedikides et al., 2003, 연구 2; Suh, 2002, 연구 1)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모두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가 각각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회의 대비에서 예측되는 행동과 일치되는 행동을 보여주므로써, 이러한 문화내적 비교 연구의 문화차 연구 방법으로서의 가치가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단일 문화 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라도 문화 비교적 이론을 다루고 있거나 그러한 함의가 크다면 문화차 비교 연구라 볼 수 있는 것이다(Smith, 1995).

차이의 배경을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의 자기와 타인 사이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의 유사성 지각(연구 2)과 소속 집단과 성원들에 대한 공동체 의식(연구 3)의 차이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려 하였다. 이 두 요인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회의 특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들이므로, 이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게 되면 두 문화성향자 집단의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차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추론이 연구 2와 3의 가정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개인주의 사회 또는 개인중심성향자와 집단주의 사회 또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이 제반 사회 관계를 각각 자기 자신과 타인을 참조기준으로 하여 파악하는 차이를 보인다는 전술한 논의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 연구 1<sup>3)</sup>

자기와 타인 사이의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현상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판단 대상으로 일반적인 다른 사람이나(Kitayama et al., 1990; Srull & Gaelick, 1983, 실험 1과 실험 3), 잘 알고 있는 친구(Holyoak & Gordon, 1983, 실험 1), 특정 인물(Ronald Reagan, Barbara Walters, Walter Cronkite, 당신의 어머니·당신의 아버지 : Srull & Gaelick, 1983, 실험 2), 또는 고정관념적 집단(협동조합원·채식주의자·경영학과생·극단주의자·신입생 등 : Holyoak & Gordon, 1983, 실험 2)을 지정해 주고, 이들 각각과 자기 또는 자기와 이들 각각의 유사성을 평정하게 하였다.

그런데 자기와 잘 알고 있는 친구 사이의 유사성을 5가지 성격 특성(우호성·수줍음·근면성·지도력·차분함)과 5가지 신체적 특징(키·몸무게·머리색·신체적 힘·신체적 민첩성) 각각에서 평가하게 하여, 이 두 차원(성격 특성·신체적 특징)에서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을 검토한 한 연구(Holyoak & Gordon, 1983, 실험 1)를 제외하고, 모든 선행 연구들에서는(Holyoak & Gordon, 1983, 실험 2; Kitayama et al., 1990; Srull & Gaelick, 1983, 실험 1, 2, 3) 단일 차원에서 전반적인 유사성을

3) 연구 1은 필자의 선행 연구(조규호·김은진, 2001, 연구 2)의 결과 중에서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을 뽑아 재구성한 것임.

평정하게 하였을 뿐(예 :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은 당신과 얼마나 유사한가?” 또는 “일반적으로 당신은 다른 사람과 얼마나 유사한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러한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 현상을 검토해 본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자기와 다른 사람 사이의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 현상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유사성”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기호”, “취미”, “가치관”의 측면에서 자기와 친구가 비슷한 정도를 평정하게 하므로써, 자기와 타인 사이의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현상 및 이의 문화차가 다양한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토해 보려 하였다.

## 방 법

### 연구참가자

서강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180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들 중 남학생은 102명(56.7%), 여학생은 78명(43.3%)이었다.

###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2쪽의 “문화성향 척도”와 1쪽의 “나와 친구 사이의 유사성 측정 척도”로 소책자를 구성하여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유사성 측정 척도 하단에는 성별을 기입하는 칸이 제시되어 있었다. 소책자는 A형과 B형의 두 가지이었는데, 이 두 형은 나머지는 모두 같고, 유사성 측정 척도만 서로 달랐다.

### 문화성향 척도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의 개인중심성-집단중심성의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Singelis, Triandis, Bhawuk과 Gelfand(1995)가 제작한 INDCOL 척도를 김기범(1996) 및 Kim과 Kim(1997)이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척도이었다.

이 척도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을 다시 수직/수평(vertical/horizontal)으로 나누어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수직적 유형은 불평등을 수용하고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반면, 수평적 유형은 평등과 동등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수직적 개인주의자(VI)는 경쟁적이며 남들을 이

기는 것을 중시하고, 수평적 개인주의자(HI)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반면 수직적 집단주의자(VC)는 집단과 가족을 개인보다 우선시하고, 수평적 집단주의자(HC)는 평등한 동료들 사이의 동료애와 협동을 중시한다(Triandis, 1995; Triandis & Gelfand, 1998). Singelis 등(1995)의 척도는 이 네 하위 유형을 측정하는 Likert형 9점 척도(1 : 전적으로 반대, 5 : 중간, 9 : 전적으로 찬성)의 태도 문항 8개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기범(1996) 및 Kim과 Kim(1997)은 우리나라 대학생 326명에게 이 척도를 실시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Singelis 등(1995)의 것과 거의 유사한 요인 구조를 얻어 내었으며, Cronbach  $\alpha$ 로 측정된 신뢰도는 VI=.71, HI=.81, VC=.68, HC=.7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또한 이 척도는 “우리 의식 설문지”와의 상관 분석과 갈등 상황에서의 중재 유형과의 관계의 분석을 통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존 및 예언 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김기범, 1996; Kim & Kim, 1997).

**자기-친구의 유사성 측정 척도**

응답자들에게 자기와 친구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기호”, “취미”, “가치관”이 비슷한 정도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정도”를 0~100%(0% : 전혀 비슷하지 않다, 50% : 반 정도 비슷하다, 100% : 완전히 비슷하다)에 추정하게 하였다. 이 때 설문지는 “내가 친구들과 비슷한 정도”(예 : 내가 친구들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정도)를 추정하게 하는 A형과 “친구들이 나와 비슷한 정도”(예 : 친구들이 나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정도)를 추정하게 하는 B형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A·B형 설문지에 모두 남한 남자와 북한 남자, 뉴욕과 서울, 개와 늑대, 남한 여자와 북한 여자, 남한인과 북한인이 비슷한 정도에 관한 문항을 위의 핵심 문항 5개와 섞어서 번갈아 제시하였다. 이들은 관심 분산용 문항들로서 A·B형에 모두 같았으며, 결과 분석에 사용

- 4)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이 척도 표준화의 연구는 Triandis와 Gelfand(1998)의 연구 1을 구성하여, 수직/수평 개인주의-집단주의 개념과 그 측정 방법의 문화 보편적인 타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 5) 여기서는 내집단원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다른 사람이 아닌 친구와 비교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 6) 모두 전자를 주어로, 후자를 보어로 하여 제시하였다(예 : 남

하지는 않았다.

**절차**

실험은 75명과 105명의 두 강의 분반에서 집단적으로 실시되었다. 실험자는 강의실에 입장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려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정답이나 오답은 없으며, 응답 결과는 전체적으로 통계 처리될 뿐, 개인의 응답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니, 솔직하고도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란다”는 요지의 설명을 한 다음, 반 별로 A형 설문지와 B형 설문지를 대체로 반반씩 되도록 배부하고, 설문지의 지시문에 따라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자 중 91명(50.6%)은 A형을, 89명(49.4%)은 B형을 평정하였는데,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이었다.

**결과 및 해석**

**문화성향집단 선별**

각 응답자 별 문화성향을 각 하위유형(VI, HI, VC, HC)과 전체(TIND, TCOL)로 계산하여 그 상호 상관을 계산해 본 결과, VI와 HI는 TIND(각각  $r=.81$ 과  $.79$ )와, 그리고 VC와 HC는 TCOL(각각  $r=.87$ 과  $.86$ )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나머지 요소들 간에는 이들보다 아주 낮은 상관( $r=.13 \sim .30$ )을 보일 뿐이었다. 다만 TIND와 TCOL 사이에  $.32(p<.01)$ 의 비교적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검출되고 있었다.

응답자들을 집단중심성향과 개인중심성향의 중앙치 분리법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눈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개인중심성향자는 34명(18.9%)이

표 1. 성향별 응답자 분포 (명)

	개인 중심 성향 (TIND)	
	저	고
집단중심성향 (TCOL)	57	34 (개인중심성향자)
	32 (집단중심성향자)	57

한 남자가 북한 남자와 비슷한 정도.

표 2. 문화성향별 나-친구 유사성 평정 평균 및 그 차이

	집단중심성향자(n=34)			개인중심성향자(n=32)			성향집단간: 유사성 지각차이 <sup>f</sup>
	나→친구 <sup>a</sup>	친구→나 <sup>b</sup>	차이	나→친구 <sup>a</sup>	친구→나 <sup>b</sup>	차이	
의견	53.5	56.3	-2.8	45.0	46.3	-1.3	
		54.8			45.6		9.2*
기호		50.0	7.9*	40.8	40.7	.1	13.5**
	49.4	49.0	.4	37.4	38.7	-1.3	
취미		50.3	.5		37.9		11.3*
	50.8	50.6		35.3	36.8	-3.4	13.8*
가치관		47.3	11.5**	41.8	44.7	-2.9	
전반적 유사성	58.8	53.4		43.1			10.3*
전체	54.1	50.6	3.5	40.1	41.8	-1.7	
		52.5			40.8		11.7

a : 내가 친구와 유사한 정도

\* $p < .05$  \*\* $p < .01$

b : 친구가 나와 유사한 정도

c : 집단중심성향자의 a, b의 평균. 즉, 집단중심성향자가 지각한 친구와의 종합 유사성 평균.

d : 개인중심성향자의 a, b의 평균. 즉, 개인중심성향자가 지각한 친구와의 종합 유사성 평균.

e : c와 d의 차이. 즉, 친구와의 종합 유사성 평정의 성향집단 간 차이.

고, 집단중심성향자는 32명(17.8%)인 것으로 판별되었다.<sup>7)</sup>

#### 자기와 친구 사이의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문화차

응답자들이 제시된 5개 문제 영역에서 “내가 친구와 유사한 정도”와 “친구가 나와 유사한 정도”를 평정한 점수와 응답자별 5개 영역 전체의 유사성 평정의 평균치를 자료로 하여, 자기와 친구 사이의 비대칭적 유사성 지각 경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두 문화성향 집단이 평정한

“나의 친구에 대한 유사성”과 “친구의 나에게 대한 유사성”, 그리고 이 두 평정을 합한 “나와 친구 사이의 종합 유사성”의 평균치와 그 차이는 표 2와 같다.

이 표에서 보면,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의 유사성 평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의 친구에 대한 유사성”을 “친구의 나에게 대한 유사성”보다 높게 평정하고 있다. 이 중 “기호”의 유사성( $t=1.89$ ,  $df=32$ ,  $p<.05$ )과 “전반적 유사성”( $t=2.72$ ,  $p<.01$ )의 평정에서는 두 유사성 평정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중심성향자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모두  $p>.05$ ), 대체로 “나의 친구에 대한 유사성”보다는 “친구의 나에게 대한 유사성”을 높게 평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성 추정의 비대칭성에 관한 Kitayama 등(1990)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친구를 기준으로 하여 나와 친구 사이의 유사성을 평정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개인중심성향자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나와 친구 사이의 유사성을 평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두 문화성향 집단이 보이는 내집단원과의 유사성 지각의 차이와 관련하여 표 2에서 더욱 중요한 결과는 “나의 친구에 대한 유사성”과 “친구의 나에게 대한 유사성”을 합

7)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두 문화성향 집단의 문화 내 비교 연구를 통해 문화차에 접근하고자 하는 문화 비교 연구이다. 따라서 연구 1, 2, 3 모두에서 이 두 문화성향 집단을 선정하여, 그들의 반응만을 비교하고 있다. 참고로 Sedikides 등(2003, 연구 2)도 본 연구와 같은 중앙치 분리법에 따라 분류한 두 문화성향 집단의 결과만을 비교하고 있다. 물론 본 연구의 개인중심성향자와 집단중심성향자의 문화성향을 다른 문화,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개인주의 사회의 두 문화성향자 집단의 그것과 비교해 보아, 문화권에 상관없이 두 문화성향자 집단 간에 예상된 바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유태인(Kurman, 2001, 연구 2)과 미국인(Sedikides et al., 2003, 연구 2; Suh, 2002, 연구 1)을 대상으로 한 동일 문화 내 문화성향자 집단 간 연구에서도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문화차의 현상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본 연구 결과의 문화 비교 결과로의 해석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하겠다.

친 “나와 친구와의 종합 유사성”에서 모두 집단중심성향자의 추정치(c)가 개인중심성향자의 추정치(d)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사실이다,  $t=1.89\sim 2.66$ ,  $df=64$ ,  $p<.05\sim .01$ . 이러한 결과는 집단중심성향자는 개인중심성향자보다 자기와 내집단원 사이의 유사성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 연구 2<sup>8)</sup>

앞선 연구에서는 두 문화성향 집단 간에 예상한 대로 의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의 경향을 보임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집단중심성향자들은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자기와 친구 사이의 유사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자기가 내집단원들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가 매우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친구들과 의견·기호·취미·가치관 등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의 허구적 합의성(false consensus) 지각<sup>9)</sup> 정도가 미국 학생들의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검출된 문화간 비교 연구의 결과(Choi, Sola, & Cha, 2001)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집단 성원들과의 유사성 지각의 차이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특징적인 차이의 하나이다(Markus & Kitayama, 1991a, b; Triandis, 1989, 1990, 1994, 1995;

Triandis et al., 1985, 1988; Triandis, McCusker, & Hui, 1990). 이러한 사실은 개인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허구적 독특성(false uniqueness)<sup>10)</sup> 지각 경향(Marks, 1984; Myers, 1987; Snyder & Fromkin, 1980)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약하다(조금호, 2002, 2003a; 조금호·명정완, 2001; Heine & Lehman, 1997; Heine et al., 1999; Kunda, 2000; Markus & Kitayama, 1991b; Matsumoto, 2000)는 결과들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문화유형에 따른 타인과의 유사성 지각의 이러한 차이는 두 문화집단의 사회화 강조점에 따른 주의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 내에서의 위치 확인 및 내집단과의 동질성 추구에 사회화의 강조점이 주어지고, 따라서 집단과의 관계에 의해 정체감이 정의되므로, 내집단원과의 원만한 관계의 유지에 주의의 초점이 주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집단원과의 유사성을 강조하여 지각하는 경향(허구적 합의성 지각 경향)이 강하게 된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독립적인 개인의 능력 확인 및 자율성 추구에 사회화의 강조점이 주어지고, 따라서 여러 능력과 특성들의 개인적인 보유와 성취에 의해 정체감이 정의되므로, 정적인 자기 개별성의 확보에 주의의 초점이 주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기의 독특성을 정적으로 과장하여 지각하는 경향(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이 강하게 되는 것이다(Fiske,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 Heine et al., 1999; Kitayama et al., 1997; Triandis, 1990, 1994, 1995; Weldon, 1984).

앞에서 연구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자기와 타인 사이의 비대칭적 유사성 지각 양상의 문화차는 두 문화유형 (또는 두 문화성향 집단) 사이의 주의의 초점의 차이로 인해 판단의 참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날 가능

8) 연구 2는 필자의 또 다른 선행 연구(조금호·명정완, 2001, 연구 2)의 결과 중에서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을 뽑아 재 분석하고 재정리한 것임.

9) 본래 Ross, Greene과 House(1977)의 실험에서 밝혀진 현상으로,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의 보편성을 과장하는 식으로 타인에 대한 지각을 왜곡하는 편향”(Taylor, Peplau, & Sears, 2003, p. 520)을 말한다. Ross 등(1977)은 자기가 어떤 문제에 찬성할 경우 타인의 찬성율을 높게 추정하고, 자기가 반대할 경우 타인의 반대율을 또한 높게 추정한다는 결과에 더해, 이것이 자기중심적 귀인(egocentric attribution)을 가져오는 편향적(biased) 판단 경향이라 보아, “허구적(false)”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주의 사회의 판단 경향에 기울어진 용어로, 어려서부터 자기 은폐와 타인과의 조화 및 집단 규범에의 동조를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살아 온 집단주의 사회의 성원들에게는 맞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다. 그들에게 있어 이는 “허구적 합의성 지각”이 아니라 “실제적 합의성 지각”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하겠다.

10) “자신의 능력 등 여러 특성의 정적 독특성을 과장하는 식으로 타인에 대한 지각을 왜곡하는 편향”(Taylor et al., 2003, p. 520)이다. 예를 들면, 미국 대학생들 중 자기의 지도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70%에 이르고, 60%의 학생들은 남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 상위 10% 이내에 든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기의 사교성이 상위 1% 이내에 든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25%에 이르고 있는데(Myers, 1987), 이러한 결과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의 전형적인 예이다.

성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의 초점의 차이는 곧바로 두 문화유형 (또는 두 문화성향 집단)에서 나타나는 허구적 합의성 또는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의 차이를 유발하게 됨을 논의하였다. 이렇게 두 문화성향 집단의 주의의 초점의 차이가 두 문화집단의 허구적 합의성 (또는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과 자기-타인 사이의 비대칭적 유사성 지각 경향의 문화차를 유발한다면, 이 두 문화차(허구적 합의성 지각 경향과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자기→타인의 유사성을 타인→자기의 유사성보다 높게 인식하지만, 개인중심성향자들은 자기→타인 유사성보다 타인→자기 유사성을 높게 인식하는 연구 1에서와 같은 경향은, 두 문화성향자들의 허구적 합의성 지각 경향의 영향력을 통제하게 되면 사라지게 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Baron & Kenny, 1986; Sedikides et al., 2003). 연구 2에서는 이러한 예측을 검토해 보려 하였다.

## 방 법

### 연구 참가자

서강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239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들 중 남학생은 155명(64.9%), 여학생은 84명(35.1%)이었다.

### 측정도구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사용했던 “문화성향 척도”, “자기-친구의 유사성 척도” 이외에 1쪽의 “허구적 합의성 척도”를 덧붙여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소책자는 A형과 B형 두 가지이었는데, 이 두 형은 나머지는 모두 같고, 유사성 측정의 방향만 서로 달랐다.

### 허구적 합의성 척도

연구 참가자들이 자신을 얼마나 타인과 유사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허구적 합의성 지각 정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Ross, Greene과 House(1977)는 허구적 합의성을 “자신의 선택과 판단은 상대적으로 보편적이고 기존 상황에 적합한 반면, 이와 대비되는 반응은 희귀하고 일탈적이며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경향”(p. 280)이라 규정하

고, 이를 가설적 행동 선택 상황에서 자기가 선택한 선택지와 배척한 선택지에 대한 일반인의 선택 반응 추정(연구 1), 자기의 개인적 성격·선호·적응문제·신상 변화에의 기대·정치적 태도 등과 같거나 다른 성향을 보이는 일반인의 비율 추정(연구 2), 실제 갈등 상황에서 자기가 선택한 행동과 배척한 행동에 대한 일반인의 반응 추정(연구 3과 4)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밝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oss 등(1977)의 연구 2의 방법을 원용하여 응답자들의 허구적 합의성 지각 정도를 측정하려 하였다. 즉, “현 정부의 대북 정책”,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인간복제자”, “미국인”, “일본인”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 중 몇 %가 나와 같은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추정하게 하였다. 이때 자기가 이런 문항 각각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중 몇 %가 자기와 같은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겠는지를 추정해 보아야 한다는 주의를 주었다.

### 절차

실험은 70~100여명의 세 강의 분반에서 집단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절차는 연구1과 같았다. 반 별로 A형 설문지와 B형 설문지가 대체로 반반씩 되도록 배부하고, 설문지의 지시문에 따라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자 중 118명(49.4%)은 A형을, 121명(50.6%)은 B형을 평가하였는데,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 결과 및 해석

### 문화성향집단 선별

각 응답자별 문화성향을 각 하위 차원(VI, HI, VC, HC)과 전체(TIND, TCOL)로 계산하여 상호 상관을 구하여 본 결과,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VI와 HI는 TIND(각각  $r=.80$ 과  $.78$ )와, VC와 HC는 TCOL(각각  $r=.87$ 과  $.86$ )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나머지 요소들 간에는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VC와 HC 사이의 상관( $r=.49$ )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낮은 상관( $r=.06 \sim .26$ )을 보여주고 있었다. TIND와 TCOL 사이에는  $r=.26$  ( $p<.001$ ) 정도의 상관이 있었다.

이 연구의 응답자들을 개인중심성향과 집단중심성향의 중앙치 분리법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눈 결과, “개인



표 3. 문화성향별 나-친구 유사성 평정 평균 및 그 차이

	집단중심성향자			개인중심성향자			성향집단간 유사성 지각차이
	나→친구	친구→나	차이	나→친구	친구→나	차이	
의견	62.0	57.5	4.5	39.1	46.8	-7.7	16.1***
	59.6			43.5			
기호	57.7	61.0	-3.3	36.8	50.2	-13.4*	15.6**
	60.0			44.4			
취미	59.0	46.5	12.5*	45.9	44.3	1.6	7.2
	52.2			45.0			
가치관	58.8	49.8	9.0	32.9	42.1	-9.2	15.8***
	53.9			38.1			
전반적 유사성	61.0	51.9	9.1	36.5	44.6	-8.1	15.0***
	56.0			41.0			
전체	59.7	53.3	6.4	38.2	45.6	-7.4	13.8***
	56.2			42.4			

\* $p < .05$  \*\* $p < .01$  \*\*\* $p < .001$

중심성향 고—집단중심성향 저”인 개인중심성향자가 39명(17.0%), “개인중심성향 저—집단중심성향 고”인 집단중심성향자가 44명(19.2%)인 것으로 판별되었다.

자가-친구 사이의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문화차

두 문화성향 집단이 평정한 “나의 친구에 대한 유사성”(나→친구)과 “친구의 나에게 대한 유사성”(친구→나), 그리고 이 두 평정을 합한 “나와 친구 사이의 종합 유사성” 평균치와 그 차이는 표 3과 같다.

이 표에서 보면, 개인중심성향자들은 “취미”에 대한 유사성 평정을 제외하고는 “친구의 나에게 대한 유사성”을 “나의 친구에 대한 유사성”보다 높게 평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중심성향자들은 “기호”에 대한 유사성 평정을 제외하고는 “나의 친구에 대한 유사성”을 “친구의 나에게 대한 유사성”보다 높게 평정하고 있다. 문화성향에 따른 이러한 반대되는 유사성 추정 경향은 특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가치관”, “전반적 유사성” 및 “전체”에서 문화성향×유사성 평정 방향의 상호작용이 비록 5%의 유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8% 수준의 유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결과에서 드러난다,  $F(1, 77)=3.05 \sim 3.22$ ,  $.05 < p < .08$ .

여기서 5개 영역 전체에서 두 문화성향 집단이 보이는 이러한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 현상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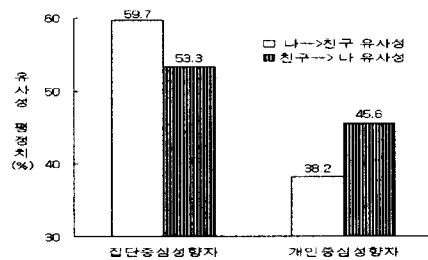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성향에 따른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친구들이 나와 유사한 정도보다는 내가 친구들과 유사한 정도가 더 크다고 보고 있으며, 반면에 개인중심성향자들은 내가 친구들과 유사한 정도보다는 친구들이 나와 유사한 정도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Kitayama 등(1990) 및 연구 1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친구를 기준으로 하여 나와 친구 사이의 유사성을 평정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개인중심성향자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나와 친구 사이의 유사성을 평정하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문화성향 집단이 보이는 친구와의 유사성 지각의 차이와 관련하여 표 3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결과는 “나의 친구에 대한 유사성”과 “친구의 나에게 대한 유사성”을 합친 “나와 친구와의 종합 유사성”에서 취미의 경우를 제외

하고,  $t=1.47$ ,  $df = 77$ ,  $p>.10$ , 나머지는 모두 집단중심성향자의 추정치가 개인중심성향자의 추정치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사실이다,  $t=3.00\sim 3.72$ ,  $p<.01$ . 이러한 결과는 집단중심성향자의 자기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의 합의성 지각 경향이 개인중심성향자보다 클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허구적 합의성 지각 경향의 문화차

두 문화성향 집단이 각 문제 영역에 대해 추정된 합의성 평정치는 표 4와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집단중심성향자들은 개인중심성향자보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우리나라 사람들)과의 합의성을 높게 추정하고 있다. 특히 “대북정책”, “경제정책” 및 “일본인”에 대한 태도의 합의성 추정치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t=1.99\sim 2.65$ ,  $df=81$ ,  $p<.05\sim .01$ , 전체적인 합의성 추정치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1.97$ ,  $p<.05$ .

유사성 판단과 허구적 합의성 판단의 관계

표 3의 결과에서 보면, 집단중심성향자(56.2%)가 개인중심성향자(42.4%)보다 전반적으로 자기-친구 사이의 유사성을 높게 추정하고 있다,  $F(1, 77)=8.98$ ,  $p<.01$ . 집단중심성향자들이 이렇게 좁은 범위의 내집단원인 친구와의 유사성을 크게 지각하는 경향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에서 넓은 범위의 내집단원들인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와의 합의성을 허구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연구에서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의 전체 합의성 추정치(각각 53.7%와 48.0%)를 변량분석하면,  $F=3.88$  ( $p<.05$ ) 수준이었으나, 전체 유사성 평정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하면,  $F=1.67$  ( $p>.20$ ) 수준으로 감소하여, 두 집단 합의성 추정 경향의 차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결과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은 개인중심성향자들에 비해 내집단원과의 유사성을 더 크게 인식하며, 이러한 경향은 곧바로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태도와 의견에서 내집단원과의 합의성을 높게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표 4. 문화성향집단별 합의성 추정치 평균

문제영역	집단중심성향자	개인중심성향자	차 이
대북정책	51.9	44.9	7.0*
경제정책	58.5	51.8	6.7*
인간복제	54.9	52.7	2.2
북한남자	49.4	45.8	3.6
북한여자	50.0	48.6	1.4
미국인	46.4	41.3	5.1
일본인	64.9	50.8	14.1**
전 체	53.7	48.0	5.7*

\* $p<.05$ , \*\* $p<.01$

내집단원과의 허구적 합의성 및 유사성 지각 경향의 두 문화성향 집단 간 차이가 자기-친구 사이의 비대칭적 유사성 지각 양상의 문화차를 증대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Baron과 Kenny(1986)에 따르면, ㉠ 독립변인 A(여기서는 문화성향)가 종속변인 C(여기서는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의 문화차)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고, ㉡ A가 또 다른 변인 B(여기서는 허구적 합의성 지각 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면서, 동시에 ㉢ B의 효과를 통제할 경우, 독립변인 A가 종속변인 C에 미치는 효과가 사라진다면, 변인 B는 A가 C에 미치는 효과를 증대하는 변인이라 볼 수 있다(Sedikides et al., 2003). 앞에서 ㉠(그림 1)와 ㉡(표 4)의 조건은 충족되었다. 따라서 내집단과의 허구적 합의성 또는 유사성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하였을 때, 문화성향에 따른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문화차가 사라진다면, 이 두 변인 사이에서 허구적 합의성 또는 유사성이 증대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그림 1에서와 같은 문화성향×유사성 평정 방향의 상호작용효과( $F=3.18$ ,  $p<.08$ )는 허구적 합의성 평정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하면,  $F=1.93$ ,  $p>.15$  수준으로 감소하여,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경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집단중심성향자들은 개인중심성향자들에 비해 내집단원과의 유사성 및 합의성을 더 크게 인식하며, 이러한 경향은 곧바로 그들이 자기보다 내집단원들을 참조점으로 하여 자기-타인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므로써, 개인중심성향자들과는 달리 자기→타인

의 유사성을 타인→자기의 유사성보다 더 크게 인식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 연구 3<sup>11)</sup>

연구 1과 2에서는 응답자들의 문화성향에 따라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에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대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문화성향 집단 간 차이는 두 문화성향자들이 자기와 타인 사이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의 합의성 또는 유사성의 정도를 다르게 인식하는 경향에 의해 증대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연구 2). 즉,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집단 내의 조화로운 관계의 유지에 관심을 크게 가지기 때문에 내집단원과 자기의 합의성을 크게 인식하고, 따라서 이들을 기준으로 삼아 자기와 타인 사이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므로써, 자기→타인의 유사성을 타인→자기의 유사성보다 크게 판단한다. 이에 비해, 개인중심성향자들은 자기 독립성의 확보에 관심을 크게 가지기 때문에 자기의 독특성을 크게 인식하고, 따라서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 타인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므로써, 자기→타인의 유사성보다 타인→자기의 유사성을 크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사회(또는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주의 사회(또는 개인중심성향자)의 기본적인 관심의 차이(전자는 내집단 성원 및 이들과의 조화로운 관계; 후자는 독립적인 개인의 자율성과 독특성)를 가져오는 요인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요인들은 모두 두 문화집단에서의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게 됨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 3에서는 두 문화집단의 기본적인 관심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을 선정하여, 두 문화집단의 공동체 의식 수준의 차이가 두 문화집단에서의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차이를 증대할 것이라는 예측을 검토해 보려 하였다.

11) 연구 3의 자료는 정영희(2004)가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제출하는 석사학위 논문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첨가하여 수집하였음.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정석사와 자료의 통계 분석을 도와준 박동필석사에게 감사드린다.

공동체 의식이란 “구성원들의 소속감, 구성원들이 서로 중요하다는 느낌, 그리고 구성원들의 요구가 자기들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충족될 것이라는 공유된 신념”(McMillan & Chavis, 1986, p. 11)으로, 집단주의 사회의 기본 특징 중의 하나이다.<sup>12)</sup>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 목표를 내집단의 목표에 복속시키고, 내집단을 자기의 확장으로 받아들여 강한 내집단 정체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내집단의 통합과 조화를 강조하고, 내집단에 대해 강한 정서적 애착을 갖는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집단 목표보다 개인의 목표를 선행시키고, 자기를 집단과는 분리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의 결속에는 비교적 관심이 적으며, 정서적으로도 거리감을 갖는다(Fiske et al., 1998; Hofstede, 1980, 1991; Hui & Triandis, 1986; Markus & Kitayama, 1991a; Triandis, 1989, 1990, 1994, 1995; Triandis et al., 1985, 1988, 1990). 따라서 집단주의 사회 (또는 집단중심성향자)의 공동체 의식 수준이 개인주의 사회 (또는 개인중심성향자)의 그것보다 높은 것(이종한, 1992)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 것이다.

문화집단에 따른 이러한 공동체 의식의 차이는 두 문화성향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의 차이(집단중심성향자: 내집단 성원; 개인중심성향자: 자기 자신)를 유발하게 되어, 이 요인 또한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은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문화성향 집단 간 차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 3에서는 두 문화성향 집단에서 공동체 의식 수준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게 되면, 이 두 문화성향 집단의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차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검토해 보려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문화차가 집단주의 (또는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주의 (또는 개인중심성향자)의 기본 관심 대

12) “공동체 의식과 집단주의는 공유하는 특성이 많은 한편, 서로 공유할 수 없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다”(정진경, 1999, p. 21). 정진경(1999)은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의 개방성·부정성·진보성 등을 그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주의의 기본이 되는 신념으로, 집단주의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 사회보다는 집단주의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종한, 1992). 이에 대해서는 이종한(1992)과 정진경(1999) 참조.

상의 차이와 이로부터 연유되는 사회 판단에서의 참조기 준의 차이로 인해 유발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기본 가설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의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 참가자

서울과 그 위성도시에 소재한 10개 고등학교 2학년 1,350명이 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들 중 응답을 빠뜨렸거나 중복 응답을 하는 등 불성실하게 설문지를 작성한 17명을 제외한 총 1,333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중 남학생은 694명(52.1%), 여학생은 639명(47.9%)이었다.

###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2쪽의 “문화성향 척도”와 1쪽의 “공동체 의식 척도” 및 1쪽의 “자기-타인의 유사성 척도”로 소책자를 구성하여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소책자는 A형과 B형 두 가지이었는데, 여기서는 연구 1과 2에서처럼 자기-친구의 유사성을 평정하게 하지 않고, 자기와 “우리 학교에 다니는 보통의 학생들”을 비교하여 유사성을 평정하게 하였다. 이는 유사성 판단 대상이 같은 소속의 내 집단원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이었다. 그리고 연구 3에서는 유사성 평정 차원도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의 단일 차원으로 설문지를 단순화하였다.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A·B 두 유형은 나머지는 모두 같고, 유사성 측정의 방향만 서로 달랐다.

### 공동체 의식 검사

연구 참가자들의 공동체 의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진경(1999)이 개발한 “한국 공동체 의식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응답자들의 공동체 의식 수준을 소속 집단에 대한 친밀감과 소속감(예: 나는 집단 속에서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느낀다), 조화와 단결(예: 나의 행동이 집단에 해가 된다면, 기꺼이 나의 행동을 고친다), 집단 활동에의 참여(예: 집단의 일에는 자발적으로 협동한다), 동일시와 공과의 공유(예: 나를 희생할지라도 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공공의식(예: 우리의 공공기물을 내 것처럼 소중히 다룬다), 집단에의 복종

(예: 집단의 결정에 나는 무조건 따른다) 등 6요인으로 나누어, 이들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대우 그렇다”(5)의 5점 척도에서 평정토록 한 검사이다. 전체 검사는 각 요인 당 4 문항씩 모두 24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전체 문항에 대한 반응을 합산한 평균치를 공동체 의식 수준의 지표로 삼도록 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정진경(1999)이 보고한 이 검사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92로 매우 높았으며,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을 것이라 예측되는 집단(공동 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들)의 검사 결과가 공동체 의식 수준이 낮을 것이라 예측되는 집단(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들)의 검사 결과보다 유의미하게 높아, 만족할 만한 수준의 타당도를 보이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 참가자들로부터 얻은 신뢰도도 .8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 절차

선정된 학교의 해당 학급 담임교사들에게 설문지에 대한 소개와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한 후, 유사성 판단 유형에 따라 A형 설문지(676부)와 B형 설문지(674부)가 대체로 반반씩 되도록 배부토록 한 다음, 담임교사의 지도 아래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응답토록 하였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 결과 및 해석

### 문화성향집단 선별

각 응답자별 문화성향을 각 하위차원(VI, HI, VC, HC)과 전체(TIND, TCOL)로 계산하여 상호 상관을 구하여 본 결과, 연구 1 및 2에서와 마찬가지로 VI와 HI는 TIND(모두  $r=.81$ )와 VC와 HC는 TCOL(각각  $r=.87$ 과  $.88$ )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나머지 요소들 간에는 연구 2에서와 마찬가지로 VC와 HC 사이의 상관( $r=.53$ )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낮은 상관( $r=.09\sim.31$ )을 보여주고 있었다. TIND와 TCOL 사이에는  $r=.21(p<.01)$  정도의 상관이 있었다.

이 연구의 응답자들을 개인중심성향과 집단중심성향의 중앙치 분리법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눈 결과, “개인

중심성향 고-집단중심성향 저"인 개인중심성향자가 274명(20.6%), "개인중심성향 저-집단중심성향 고"인 집단중심성향자가 252명(18.9%)인 것으로 판별되었다.

자기-타인 사이의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문화차 두 문화성향 집단이 평정한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에서 "내가 우리 학교에 다니는 보통의 학생들과 유사한 정도"(나→타인)와 "우리 학교에 다니는 보통의 학생들이 나와 유사한 정도"(타인→나)를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자기→타인의 유사성을 타인→자기의 유사성보다 높게 평가하지만, 개인중심성향자들은 타인→자기의 유사성을 자기→타인의 유사성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위의 결과를 2(문화성향)×2(유사성 판단 방향)의 요인방안으로 변량분석하면, 문화성향×유사성 판단 방향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  $F(1,522)=3.92, p<.05$ ,는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분석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결과는 문화성향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차이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F(1,522)=3.47, p<.06$ . 이는 그림 2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집단중심성향자(51.43%)가 개인중심성향자(47.32%)보다 유사성 평정 방향을 통합한 자기-타인의 전체 유사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앞선 연구들의 결과와 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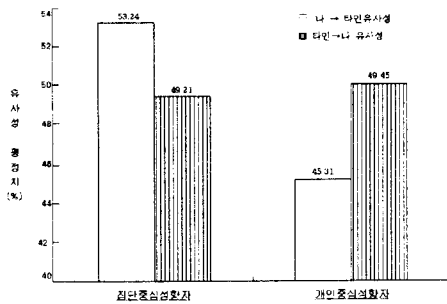


그림 2. 문화성향에 따른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차이

#### 공동체 의식 수준의 문화차

예측한 바대로, 집단중심성향자의 공동체 의식 수준(3.62)은 개인중심성향자의 공동체 의식 수준(3.27)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검출되었다,  $t=9.33, df=524, p<.001$ . 이러한 사실은 전체 연구 참가자(1,333명)의 집단중심성향(TCOL)과 공동체 의식 수준 사이의 상관( $r=.63, p<.001$ )이 개인중심성향(TIND)과 공동체 의식 수준 사이의 상관( $r=.24, p<.001$ )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t=15.90, df=1,331, p<.001$ ,는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과 공동체 의식 수준의 관계 앞에서 문화성향에 따라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 수준에도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여기서 공동체 의식 수준이 문화성향에 따른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차이를 중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를 따라 공동체 의식 수준을 공변인으로 하여 문화성향×유사성 평정 방향의 공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 표에서 보면, 원래 유의미했던 문화성향×유사성 평정 방향의 상호작용효과,  $F=3.92, p<.05$ , 가 공변량분석에서는 사라지고 있다,  $F=3.14, p<.08$ . 이는 문화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비대칭적 유사성 평정 양상은 두 문화성향 집단의 공동체 의식 수준의 차이에 의해 중개되어짐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추론은 표 5에서 원래 유의미한 경향을 띤던 문화성향 집단에 따른 전반적인 유사성 평정의 차이,  $F=3.47, p<.06$ ,가 공동체 의식 수준을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분석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F=.35, p>.56$ ,는 결과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동체 의식 수준은 소속 집단 및 집단 성원에의 관심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요인이 문화성향에 따른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차이를 중개한다는 이러한 결과는 문화성향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 집단 성원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표 5. 문화성향×유사성 평정 방향의 공변량분석 결과 (F)

	문화성향(A)	유사성방향(B)	상호작용(AB)
원래의 변량분석	3.47	.01	3.92*
공변량분석	.35	.01	3.14

\* $p<.05$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문화차를 가져오는 원천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즉,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집단 성원에 대한 관심의 수준이 높으므로, 자기-타인의 유사성 판단에 타인(내집단원)을 참조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타인의 유사성을 타인→자기의 유사성보다 높게 인식한다. 이에 비해, 개인중심성향자들은 집단 성원보다 자기에 대한 관심 수준이 더 높으므로, 자기를 참조기준으로 삼아 자기-타인의 유사성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타인의 유사성보다 타인→자기의 유사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이다.

### 총 합 논 의

세 실험에서 모두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의 자기-내집단원 사이의 유사성 판단의 서로 다른 비대칭성 현상이 밝혀졌다. 즉, 집단중심성향자는 내집단원이 자기와 비슷한 정도보다는 자기가 내집단원과 비슷한 정도가 더 크다고 보지만, 개인중심성향자들은 대체로 자기가 내집단원과 비슷한 정도보다는 내집단원이 자기와 비슷한 정도가 더 크다고 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표 2, 표 3, 그림 1 및 그림 2). 이는 전자는 자기-내집단원의 유사성 판단에서 내집단원을 참조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지만, 후자는 자기를 참조기준으로 삼아 판단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문화성향에 따른 관심과 주의의 차이

자기-내집단원 사이의 유사성 판단의 문화성향에 따른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방향의 비대칭성 현상(집단중심성향자: 나→내집단원 유사성>내집단원→나 유사성; 개인중심성향자: 나→내집단원 유사성<내집단원→나 유사성)은 두 문화성향자들의 주의 및 관심의 초점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주는 결과이다. 즉,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자기보다는 내집단원에 대해 더 정교하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내집단원이 자기보다 더 특출한 지각의 초점이 되기 때문에, 자기-내집단원 사이의 유사성 판단을 할 때 내집단원을 비교의 표준으로 삼고, 자기는 상대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개인중심성향자들은 내집단원보다는 자기에 대해 더 정교하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내

집단원보다 더 특출한 지각의 초점이 되기 때문에, 자기-내집단원의 유사성 판단의 경우 자기를 비교의 표준으로 삼고, 내집단원은 비교의 대상으로 머무르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연구 2와 연구 3의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연구 2에서는 문화성향에 따른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차이가 자기와 내집단원 사이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의 합의성 또는 유사성에 의해 증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 2에서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자기-내집단원 사이의 합의성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표 4),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보다 자기-내집단원의 의견의 합의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은 이들이 여러 문제에 대한 내집단원의 의견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내집단원의 의견을 기준으로 삼아 자기의 의견을 조율하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자기-내집단원 사이의 의견의 합의성을 적게 인식하는 개인중심성향자들은 여러 문제에 대한 자기 의견의 독특성을 과장해서 인식하므로써,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 자기-내집단원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자기-내집단원의 합의성 정도를 통제했을 때 두 문화성향 집단의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차이가 사라진다는 연구 2의 결과는, 이 두 문화성향 집단의 참조기준의 차이(집단중심성향자: 내집단원; 개인중심성향자: 자기)가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문화차를 조절하는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 3에서는 문화성향에 따른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차이가 공동체 의식 수준에 의해 증대됨이 밝혀졌다. 공동체 의식은 소속 집단과 내집단원에 대한 소속감, 상호영향, 요구의 충족 및 정서적 유대로 이루어지는 신념으로(이종환, 1992; 정진경, 1999), 이 수준이 높게 되면 내집단원에 대한 관심과 의존감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내집단원을 기준으로 삼아 자기의 행동과 의견을 이들에게 맞추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임은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다(Fiske et al., 1998; Hofstede, 1980, 1991; Hui & Triandis, 1986; Markus & Kitayama, 1991a; Triandis, 1989, 1990, 1994, 1995; Triandis et al., 1985, 1988, 1990). 연구 3에서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의 공동체 의식 수

준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집단중심성향자들의 공동체 의식 수준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높다는 것은 이들이 내집단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이들을 기준으로 삼아 사회 판단을 하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공동체 의식 수준이 낮은 개인중심성향자들은 상대적으로 내집단원에 대해서보다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 높고, 따라서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 사회 판단을 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공동체 의식 수준을 통제했을 때 두 문화성향 집단의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차이가 사라진다는 연구 3의 결과도, 이 두 문화성향 집단의 참조기준의 차이가 비대칭적 유사성 판단 양상의 문화차를 증가하는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성향에 따른 자기존중감 근원의 차이

이상의 결과들에 비추어 보면,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들, 특히 내집단원(예: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며, 그들이 어떤 태도나 의견 및 기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더 기울이는 반면, 개인중심성향자들은 타인이나 내집단원들보다는 자기 자신의 특성이나 능력, 의견이나 태도, 기호 등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곧바로 두 문화성향자들의 자기존중감(self-esteem)의 근원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Crocker & Park, 2004; Helne et al., 1999; Sedikides et al., 2003; Suh, 2000)

일상생활에서의 주위와 인식의 초점이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에 집중되는 개인중심성향자들은 사회 행위의 원동력을 자기의 능력·성격·욕구 등 내적 특성에서 찾게 되고, 결국 자기의 독립성·자율성·독특성이 자기존중감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에 비해, 일상생활에서의 주위와 인식의 초점이 자기보다는 내집단원에 집중되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사회 행위의 원동력을 자기-내집단원 사이의 관계 속의 역할·의무·관여 등 상황 특성에서 찾게 되고, 결국 상호의존성·연계성·조화성·배려성이 자기존중감의 근거가 될 것이다(Bandura, 1997; Fiske, et al., 1998; Heine et al., 1999; Kunda, 2000; Markus & Kitayama, 1991a, b, 1994; Matsumoto, 2000; Sedikides et al., 2003).

이러한 사실은 미국인에게 있어서는 주관적 안녕감(sense of subjective well-being)이 자부심 및 성취감과 강한 정적 상관관이 있지만, 일본인에게 있어서 안녕감은 자부심이나 성취감과 무관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수용감과 강한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Heine & Lehman, 1995). 또한 Kitayama, Markus, Kurokawa와 Negishi(1993)에 따르면, 미국인에게 있어 전반적인 행복감은 동정심·존경감 등 사회몰입정서(socially engaged emotion)보다는( $r=.35$ ) 자부심·우월감 등 사회유리정서(socially disengaged emotion)와 더 높은 상관관이 있지만( $r=.53$ ), 일본인에게 있어 행복감은 사회유리정서( $r=.20$ )보다는 사회몰입정서( $r=.58$ )와 더 상관관이 높다.

조궁호(2002)는 개인중심성향자들은 대인관계에서의 타인에 대한 배려성의 특성(동정심·따뜻한 마음씨·타인 사정 이해성)보다는 자기의 능력(지적 능력·기억력·운동 능력)과 개체성의 특성(독립성·자립성·자기주장성)에서 자신의 독특성을 허구적으로 과장하여 지각하고,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자기의 능력이나 개체성 특성보다는 배려성의 특성에서 자신의 독특성을 허구적으로 과장하여 지각함을 두 개의 관련된 실험을 통해 밝혀 낸 바 있다. 이는 전자의 경우에는 주의 및 관심의 초점이 자신의 능력과 개체성의 특성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주의 및 관심이 일상생활에서의 대인관계와 내집단원과의 조화의 추구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일관되는 것이다.

Sedikides 등(2003)은 이러한 문화적 중시 특성의 차이는 곧 집단주의 사회(일본)와 개인주의 사회(미국)의 성원들의 자기존중감 요인의 차이로 이어지며(연구 1), 이러한 경향은 한 문화집단(미국) 내의 집단중심성향자(상호의존적 자기관 보유자)와 개인중심성향자(독립적 자기관 보유자)의 자기존중감 요인의 차이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연구 2)을 밝혀 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자기존중감의 근원은 개인으로서 유능하다는 개인효능감(personal efficacy)이라면,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자기존중감의 근원은 소속감과 조화감에서 나오는 집단효능감(group efficacy)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Bandura, 1997). 즉,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개체성 등 개인주의 문화 일치 특성의 탁월성 지각이 자기존중감의 근원이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배려

성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 일치 특성의 탁월성 지각이 자기존중감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여, Suh(2000)는 집단주의자인 동아시아인의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확립된 자기평가(self-appraisal)의 기준이 사회적 기대·의무·책임 등 외적 형태로 개인에게 부과되지만 …… 고도로 자기중심적인 북미인의 자기평가는 …… 자기에게 맞추어 재단되기 쉬운 주관적이고 내적인 표준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p. 79)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Fiske 등(1999)은 “자기와 관련된 좋은 느낌의 근원은 문화에 따라 아주 달라서, 이를 자기존중감이라고 불러야 할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p. 930)고 보고 있으며, Markus와 Kitayama (1991a)는 “자기존중이란 일차적으로 서구의 현상으로, 자기존중감의 개념은 자기만족(self-satisfaction) 또는 문화적 명제의 충족을 반영할 수 있는 (좀 더 중립적인) 용어로 대치”(p. 230)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Crocker와 Park(2004)은 자기존중감 추구의 상위 목표를 전통적으로 보아온 자기고양에만 두지 말고,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복지도 함께 포괄하는 넓은 범위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Heine 등(1999)은 개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집단주의 사회의 정적 자기평가 또는 자기존중감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화가 필요하다면서, 집단주의자들의 자기평가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존중감과 대조되는 관계존중감(relationship esteem)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상의 논의들은 모두 조궁호(2002)의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들과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재홍 (2001).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에 따른 분배규범의 선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3), 1-16.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 문화 비교 분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이수원, 이헌남 (1993). 한국인의 인정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 편, 한국인의 특성 : 심리학적 탐색 (1993년도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pp. 63-79). 서울 : 한국심리학회.
- 이종환 (1992). 공동체 의식에 관한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6(2), 76-93.
- 장성수 · 이수원 · 정진곤 (1990). 한국인의 인간관계에 나타난 분배정의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3, 217-265.
- 정영희 (2004).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공동체 의식, 대인 신뢰 및 유사성 지각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 정진경 (1999). 한국 공동체 의식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19-30.
- 조궁호 (1993).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 대인평가 이원 모형의 확대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7(1), 124-149.
- 조궁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 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5(1), 104-139.
- 조궁호 (2002). 문화성향과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6(1), 91-111
- 조궁호 (2003a).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 나남출판.
- 조궁호 (2003b). 문화성향과 통제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7(2), 85-106.
- 조궁호 · 김소연 (1998). 겸양편향자의 선호 현상.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2(1), 169-189.
- 조궁호 · 김은진 (2001). 문화성향과 동조행동.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1), 139-165.
- 조궁호 · 김지용 · 홍미화 · 김지현 (2002). 문화성향과 공감 및 고독의 수준.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6(3), 15-34.
- 조궁호 · 명정완 (2001). 문화성향과 자의식의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2), 111-139.
- 한규석 · 오점조 (1993). 아동의 교류 양상에 대한 분석 :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Freeman.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Choi, I., Sola, T., & Cha, U. (2001). *Culture and false consensus*. Unpublished manuscrip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Crocker, J., & Park, L. E. (2004). The costly pursuit of self-esteem. *Psychological Bulletin*, 130, 392-414.
- Fiske, A. P.,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T. Gil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2, pp. 915-981). Boston, MA : McGraw-Hill.
- Heine, S. J., & Lehman, D. R. (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 766-794.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 Sage.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 Software of the mind*. London : McGraw-Hill. (차재호 · 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 학지사, 1995.)
- Holyoak, K. J. & Gordon, P. C. (1983). Social reference poi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881-887.
- Holyoak, K. J., & Gordon, P. C. (1984). Information processing and social cognition. In R. S. Wyer, J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1, pp. 39-70). Hillsdale, NJ : Erlbaum.
- Hsu, F. L. K. (1985) The self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A. J. Marsella, G. A. DeVos, & F. L. K. Hsu (Eds.), *Culture and self : Asian and Western perspective* (pp. 24-55). New York : Tavistock.
- Hui, C. H., & Triandis, H. C. (1986).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225-248.
- Kim, K., & Kim, U. (1997). Conflict, ingroup and outgroup distinction and mediation : Comparison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In K. Leung, U. Kim, S. Yamaguchi, & Y. Kashima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Vol. 1, pp. 247-259). Singapore : Wiley.
- Kitayama, S., Markus, H. R., Kurokawa, M., & Negishi, K. (1993). *Social orientation of emotions : Cross-cultural evidence and implication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Oregon.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of self-esteem management :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45-1267.
- Kitayama, S., Markus, H. R., Tummala, P., Kurokawa, M., & Kato, K. (1990). *Culture and self-cognitio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Oregon.
- Kunda, Z. (2000). *Social cognition : Making sense of people*. Cambridge, MA : The MIT Press
- Kurman, J. (2001). Self-enhancement : Is it restricted to individualistic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 1705-1716.
- Marks, G. (1984). Thinking one's abilities are unique and one's opinions are comm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 203-208.
- Markus, H. R., & Kitayama, S. (1991a).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 (1991b).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J. Strauss & G. R. Goethals (Eds.), *The self :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pp. 18-48). New York : Springer.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A collective fear of the collective : Implications for selves and theories of sel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68-579.

- Matsumoto, D. (2000). *Culture and psychology : People around the world* (2nd ed.). Belmont, CA : Wadworth/Thompson Learning.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4.
- Myers, D. G. (1987). *Social psychology* (2nd ed.). New York : McGraw-Hill.
- Ross, L., Greene, D., & House, P. (1977). The "false consensus effect" : An egocentric bias in social perception and attribution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279-301.
- Sedikides, C., & Brewer, M. B. (Eds.) (2001). *Individual self, relational self, collective self*. Philadelphia, PA : Psychology Press.
- Sedikides, C., Gaertner, L., & Toguchi, Y. (2003). Pancultural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60-79.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D., & Gelfand, M.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Smith, P. B. (1995).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 Looking to the futur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6, 588-590.
- Snyder, C. R., & Fromkin, H. L. (1980). *Uniqueness : The human pursuit of difference*. New York : Plenum.
- Srull, T. K., & Gaelick, L. (1983). General principl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self as a habitual reference point : An examination of self-other judgments of similarity. *Social Cognition*, 2, 108-121.
- Suh, E. M. (2000). Self, the hyphen between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 63-86). Cambridge, MA : The MIT Press.
- Suh, E. M. (2002). Culture, identity consist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378-1391.
- Taylor, S. E., Peplau, L. A., & Sears, D. O. (2003). *Social psychology* (11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J. Berman (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pp. 41-133). Lincoln, NB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 C. (1994). *Culture and social behavior*. New York : McGraw-Hill.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 Westview.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J., & Clark, F. L. (1985). Allocentric versus ide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Triandis, H. C., McCusker, C., & Hui, C. H. (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06-1020.
- Weldon, E. (1984). Deindividuation, interpersonal affect and productivity in laboratory task grou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4, 469-485.
- Yang, K. S. (2000). Monocultural and cross-cultural indigenous approaches : The royal road to the development of a balanced global psychology.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41-263.

## **Cultural Dispositions and Asymmetry in Similarity Judgement**

**Geung-Ho Cho**

**Sogang University**

In this study, three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asymmetry in similarity judgment between self and others in terms of the differences in cultural dispositions. The Korean college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idiocentrics and allocentrics) and instructed to judge their own similarities in various attitudes, opinions and preferences with their friends' and their friends' similarities in these aspects with theirs. As expected, idiocentrics judged that their friends are more similar with them than they themselves are similar with their friends; on the other hand, allocentrics judged that they themselves are more similar with their friends than their friends are similar with them. These facts implicate that for idiocentrics they themselves are the frame of reference in self-other similarity judgement; in contrast, for allocentrics others are the frame of reference in self-other similarity judgement.

**Key words : cultural disposition, asymmetry in similarity judgment, false consensus, sense of community**

원고접수 : 2004년 12월 3일  
심사통과 : 2005년 1월 25일